

현안과제연구

# Issue Report

2016. 12. 09

## CONTENTS

### < 요약 >

#### I. 배경 및 목적

#### II. 이론적 고찰

##### 1) 선행연구

##### 2) 관련 정책 유형 구분

#### III. 유형별 정책사례

##### 1) 농촌마을 재생정책 및 사례

##### 2) 농촌마을 재편정책 및 사례

#### IV. 결론 및 시사점

##### 1) 결론

##### 2) 시사점

## 농촌마을 과소화 · 고령화에 대응한 국내 정책사례 연구

조영재 연구위원([choyj@cni.re.kr](mailto:choyj@cni.re.kr)), 윤정미 연구위원([coco@cni.re.kr](mailto:coco@cni.re.kr))  
충남발전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

본 연구는 농촌마을의 과소화 · 고령화의 진행에 따른 국내의 다양한 정책적 대응 사례를 조사하고, 이를 바탕으로 향후 관련 정책도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

### 요 약

- 과소·고령마을의 정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유형은 ‘재생’, ‘재편’, ‘소멸’의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음
  - 재편정책은 다시 ‘행정적 재편’, ‘기능적 재편’, ‘공간적 재편’의 유형이 있음
- 재생정책의 사례는 주로 물리적 환경에 집중되고, 일부 테마형 재생정책이 추진됨
  - 재생정책은 꽃길조성, 담장벽화 등 마을가꾸기, 주거환경정비, 하천 정비 등 주로 물리적 환경에 집중되고 있음
  - 일부, 에너지, 예술, 산촌유학 프로그램 등 테마형 재생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, 물리적 시설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
- 재편정책은 주로 공간적 재편 사례가 대부분이고, 소극적 대응정책에 집중됨
  - 재편정책은 커뮤니티 일부 이전, 신규마을조성 또는 기존마을 리모델링 등 주로 공간적 재편의 사례가 대부분임
  - 일부, 소득원 및 일자리 창출, 귀농·귀촌인구 유치 등 새로운 커뮤니티 창출을 위한 기능적 재편정책이 추진되고 있음
  - 또한, 과소고령화 현상과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정책보다는 복지, 의료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극적 대응정책에 집중됨
- 향후, 일반마을 정책과 차별화된 중장기적인 과소고령마을 정책이 요구됨
  - 마을 재생정책은 주민공동체 활성화가 전제 되어야 하며, 과소고령화의 경향과 마을특성에 따른 다양한 유형별 재편정책 마련이 필요함

## I. 배경 및 목적 ◀

# 01

- 최근, 저출산 및 인구증가율 감소 시대의 도래와 함께 농촌마을에서도 심각한 과소화·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, 이와 함께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위기에 처해 있음
  - 농촌마을의 과소·고령화 현상은 마을 및 공동체의 기능 약화, 농촌의 다면적 기능<sup>1)</sup>의 상실, 지역 고유의 전통과 문화의 소멸 등의 문제와 함께 실제 마을이 소멸되는 상황까지 이를 수 있음
  - 특히, 국토 정주체계의 가장 기초가 되는 단위라 할 수 있는 농촌마을의 소멸은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 상실과 정주체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
- 향후 이러한 농촌마을의 과소화·고령화 현상에 대응하여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도입해야 할 다양한 정책과제와 실천 프로그램 등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
-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농촌마을의 과소화·고령화 대응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우선, 국내의 과소·고령화 관련 다양한 정책 및 현장 대응 사례를 조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, 세부목적은 다음과 같음
  - ① 이론적 고찰 : 과소·고령마을 관련 선행연구 및 관련정책 유형 구분
  - ② 유형별 정책사례 조사 : 농촌마을 재생 및 재편 등의 사례 조사
  - ③ 시사점 도출 : 관련 정책 도입을 위한 시사점 도출

---

1) 농촌의 다면적 기능 : 식량생산의 기능, 국토 보전의 기능, 전통문화 계승의 기능, 보건·휴양의 기능 등

### 1) 선행연구<sup>2)</sup>

- 일본의 오노아끼라(大野晃)는 과소·고령화가 진행되어 마을의 공동체 기능유지가 한계에 달한 상태를 일컫는 말로 ‘한계(限界)마을’이라는 용어를 제기하였으며, 한계마을의 기준으로는 ‘65세 이상 인구가 50% 이상인 마을’로 정의하고 있음
- 또한, 일본의 경우, 과소·고령마을(한계마을)을 둘러싼 논쟁은 주로 ‘재생’, ‘재편’, ‘소멸’의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, 특히 재편의 방법으로는 ‘행정적 재편’, ‘기능적 재편’, ‘공간적 재편’이 제시되고 있음
- 조영재 등(2013)은 과소·고령마을(한계마을)의 판단기준을 인구의 공동화(인구 50명 기준), 경제기반의 공동화, 신규커뮤니티의 공동화로 제시하고, 한계화의 정도에 따라 ‘존속마을’, ‘준한계마을’, ‘한계마을’, ‘소멸마을’로 구분하여 각각의 정책방향을 제시함
- 또한, 조영재 등(2014)은 과소·고령마을(한계마을)의 ‘재생’, ‘재편’, ‘소멸’ 전략 중 ‘재편’방안에 관하여 거주지 이전, 마을간 연계, 기존 마을 커뮤니티 유지 등의 사항을 바탕으로 ‘커뮤니티 연합 또는 통합형’, ‘행정구역 합병 또는 편입형’, ‘마을리모델링 및 커뮤니티 재편형’, ‘집단 이전 또는 일부 이전형’ 등 네 가지 유형을 제시함

---

2) 자료 : 충남연구원 전략연구 2013-07, 전략연구 2014-07을 바탕으로 재정리함

## 2) 관련 정책 유형 구분<sup>3)</sup>

● 과소·고령마을의 정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유형은 ‘재생’, ‘재편’, ‘소멸’의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음

- 재생 : 극도의 한계화가 진행되더라도 마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떠한 희생과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회복시켜야 한다는 관점으로 마을자원과 관련주체의 협력에 의해 재생을 도모
- 재편 : 마을재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사회적 비용의 투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, 한계마을을 새로운 시각에서 공간적이나 기능적으로 다시 구조적 조정을 하는 방법
- 소멸 : 어떠한 정책적 투입도 농어촌마을이 한계마을로 진행하는 것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,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가능성이 있는 마을을 중심으로 자원과 노력을 기울이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소멸을 맞이하도록 함

● 재편정책은 다시 ‘행정적 재편’, ‘기능적 재편’, ‘공간적 재편’의 유형이 있음

- 행정적 재편 : 인근 마을과의 통합·합병을 추진하거나, 중심마을이나 거점기능을 수행하는 마을로 한계마을을 흡수시키고, 행정구역의 변경 등을 통하여 행정적 측면에서 재편성을 도모하는 방법
- 기능적 재편 : 인근 중심마을의 기능 강화하여 거점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거나, 초등학교 등 지역생활권을 단위로 하는 복수의 마을을 묶어 각각의 마을에 차별화된 기능을 분담하도록 하고 상호 협력과 상호 보완의 관계 속에서 기능적 측면에서의 재편을 도모하는 방법
- 공간적 재편 : 행정적 재편과 기능적 재편이 불가능할 경우, 마을의 공간적 이전 및 외부인구의 유입을 통한 신규마을 조성 등의 재편성을 도모하는 방법

---

3) 자료 : 충남연구원 전략연구 2013-07, 전략연구 2014-07을 바탕으로 재정리함

## 1) 농촌마을 재생정책 및 사례

### ● 새뜰마을사업<sup>4)</sup>

- 지역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서는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(national minimum) 보장을 위해 안전·위생 등 긴요한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,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중 하나인 ‘새뜰마을사업’을 진행하고 있음
- 2015년 85개소, 2016년 66개소가 선정되었고, 선정된 지역에는 90억 원을 시작으로 앞으로 4년 동안 생활 여건 향상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임
- 또한, 산간 달동네 같은 경우 화재, 긴급의료수송 등을 위한 마을안길 개설, 산사태, 우수범람 방지를 위한 재해방지시설을 집중 지원 하고 쪽방촌 등 주택환경이 열악한 지역에는 긴급 집수리와 함께 공폐가 등을 활용한 임대주택 조성, 소득창출을 위한 마을기업 설립 등을 지원하는 형식의 지역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지원을 할 예정임
- 이번 사업은 국비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기업의 사회공헌, 시민단체의 지원, 건축사 협회 재능기부, 기타 자원 봉사 등으로 사회의 다양한 분야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하고 있음

4) 자료 : 지역발전위원회 새뜰마을 홈페이지, <http://www.region.go.kr/newvil/index.php>  
/ 국토교통부 공식 블로그, <http://korealand.tistory.com/6649>



그림 1. 주문진 등대마을 중심거점 공동시설 예정지(좌)와 주문1리 마을의 철거된 화재현장  
(자료: <http://blog.naver.com/PostView.nhn?blogId=redis12&logNo=220778577622>)

### ◎ 전남 한옥 행복마을 조성사업<sup>5)</sup>

- 전라남도가 지난 2007년부터 역점 추진해온 ‘행복마을 조성사업’을 통하여 135개 마을이 행복마을로 육성되었고, 이 가운데 기존마을 정비형이 109개 마을이고 신규단지형이 26개 마을임
- 행복마을에서 한옥은 1천208가구가 완공됐고, 789가구가 추진중에 있는 등 총 1천997 가구가 있는데, 이 가운데 기존마을 정비형은 1천539가구(완공 1천038가구, 추진중 501가구), 신규 마을 조성형은 400가구(완공 113가구, 추진 중 287 가구), 한옥보존 시범마을은 58가구(완공 57가구, 추진 중 1가구)가 있음
- ‘기존 마을 정비형’과 ‘신규단지 조성형’으로 나뉘지는 행복마을 사업은 도 내에 1년 이상 계속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도민이 바닥면적 85㎡ 이상 한옥을 건축할 경우 보조금 4천만원, 융자금 4천만 원이 지원되며 마을 공공기반시설은 3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음
- 지난 2013년 말 현재 행복마을 조성사업을 통해 전남으로 유입된 인구는 73개 마을에 2천290명으로 나타났으며, 이 가운데 1천96명이 전남 이외의 지역에서 유입돼 순유입효과는 48%에 달한 것으로 나타남
- 행복마을은 자체 홈페이지([www.happyvill.net](http://www.happyvill.net))을 통하여 지역별·마을별

5) 자료 : 남도일보(2016.2.14), <http://www.namdonews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401953>

한옥마을 현황을 검색할 수 있고, 한옥민박 예약 및 문의가 가능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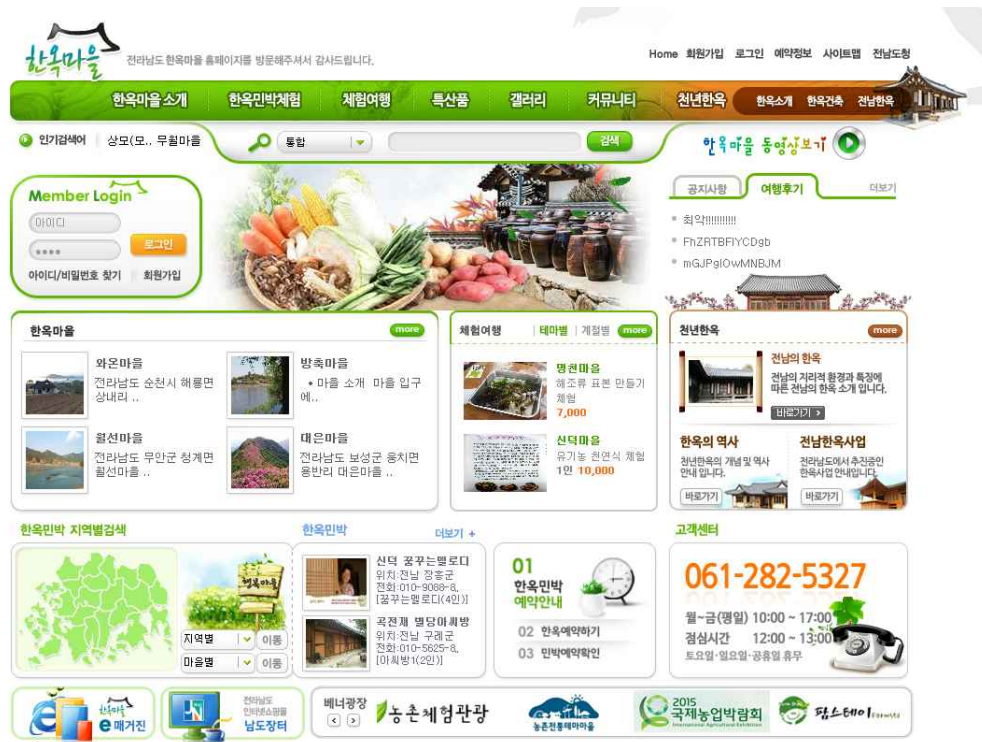


그림. 전라남도 행복마을 홈페이지

(자료 : <http://www.happyvil.net/shop/main/index.php>)

## ● 강원도 기업형 새농촌 사업<sup>6)</sup>

- 강원도는 마을 공동체가 중심이 되고, 주민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농촌마을을 만들기 위해 2016년부터 새로 도입한 “기업형 새농촌” 우수마을 20 곳을 선정하여 5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함
- 새로 시작하는 기업형 새농촌 사업은 기초마을, 도약마을, 선도마을의 총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됨
- 기초마을은 그동안 정부지원사업을 전혀 받지 않은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의 역량강화와 소규모 마을사업을 추진하여 마을공동체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마을당 1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50개 마을이 사업을 추진중임

6) 자료 : 강원도청 보도자료(2016.11.2)



- 이보다 차상위 단계인 도약마을은 기존의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지원받지 않은 마을중 총 5억원 이하의 지원실적이 있는 마을로서 마을의 소득기반시설 등을 확충하여 중앙지원사업 유치와 자립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지원함
- 선도마을은 기존 중·대규모의 정부 또는 지자체사업이 투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성도가 낮아 자립단계로 진입할 수 없는 마을에 대해 자립마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기존의 새농어촌건설운동사업 우수마을로 선정된 마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

#### ◎ 경북형 지역재생 프로젝트<sup>7)</sup>

- 경상북도는 2013년 영천시 북안면 상리 양지마을에서 ‘경북형 지역재생 프로젝트 추진단’을 출범하고, 도내 23개 시군 전역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지역재생활동을 추진하기로 함
- 지역재생 프로젝트는 하천정비, 주거환경개선, 담장정비, 도배, 벽화, 돋보기 제공, 의료봉사 등 생활인프라 및 복지·문화시설 확충을 통한 나눔과 봉사를 기치로 ‘도민 행복시대’의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



그림. 경상북도 경북형 지역재생 프로젝트

(자료 : [http://www.news1.com/ar\\_detail/view.html?ar\\_id=NISX20131209\\_0012576745&cID=10810&pID=10800](http://www.news1.com/ar_detail/view.html?ar_id=NISX20131209_0012576745&cID=10810&pID=10800) / <http://www.constime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86614>)

7) 자료 : 노컷뉴스(2013.12.9), <http://www.nocutnews.co.kr/news/1146272> / 코스카저널(2014.04.07), <http://www.koscaj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72974>



## ◎ 함안군 아라농촌마을 재생사업<sup>8)</sup>

- 함안군은 마을만들기 이오(2.5)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관내 251개 마을을 ‘기초마을’과 ‘진행마을’로 2원화 시키고, 발전 정도를 5단계로 구분하여, 기초마을은 군의 자체사업을 통하여 마을만들기 기초역량을 강화시키고,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장에 포함된 진행마을은 각 단계별 특성 있는 지역맞춤형 소득증대 6차 산업 역량을 강화시켜나가는 ‘아라농촌마을재생사업’을 추진하고 있음
- 매년 20개 마을을 선정하고 마을당 5백만 원의 마중물을 배정고 있는데, 2016년에는 칠서면 안기마을이 최우수상인 ‘아라농촌마을상’과 상사업비 700만원을 수상하였고, 우수상인 ‘공동체조성 마을상’에는 산인면 대천마을, 가야읍 당산마을이 선정돼 상사업비 각 500만원을, 장려상인 ‘경관개선 마을 상’에는 칠북면 덕촌마을, 칠서면 창동마을, 여항면 두곡마을·봉곡마을, 칠원읍 달전마을이 선정돼 상사업비 300만원을 각각 수상함
- 최우수상을 받은 칠서면 안기마을은 마을진입로에 꽃길과 화단조성, 안내 표지판 설치 등 마을주민 스스로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마을조성과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함



그림 1. 함안군 ‘2016년 아라농촌마을 재생사업’ 최우수상을 수상한 안기마을의 모습 (자료:

<http://news20.busan.com/controller/newsController.jsp?newsId=20160707000083>)

8) 자료 : 함안군 보도자료(2015.10.12) / 뉴스경남 기사(2016.07.05), [http://www.newsgn.com/sub\\_read.html?uid=130666](http://www.newsgn.com/sub_read.html?uid=130666)

## 함안군 마을만들기 이오(2.5)프로젝트



그림 2. 함안군 마을만들기 ‘이오(2.5)프로젝트’ 및 ‘아라마을만들기’ 모형  
(자료: 함안군 보도자료(2015.10.12))

### ◎ 경북도 건강 새마을 조성사업<sup>9)</sup>

- 건강 새마을 조성사업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20개 마을에 총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하여 건강취약지역의 신체적·사회적·물리적 환경을 지역주민주도의 민·관·학 협력으로 ‘건강한 우리마을, 행복한 경북 만들기’프로젝트임
- 지난 2014년도 1차년도 사업에서는 주민자치조직인 마을건강위원회를 중심으로 마을별 건강조사와 지원교수단의 현지 방문을 통한 기술지원과 자문, 마을건강위원회 주관의 건강새마을 조성사업 발대식, 지역사회 역량교육등 환경 기반조성을 마무리하고, 2차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탁구교실, 스포츠댄스, 걷기코스 개발 및 걷기동아리 활동, 푸른숲 환경정비, 매일 아침 체조방송, 경로당 건강벽화 및 건강소식지 제작, 담배없는 마을가꾸기, 싱겁게 먹기 실천마을 등 마을별 특성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 중임
- 울진군의 경우, 건강취약지역인 매화면을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지로 선정해 걷기동아리 활동, 생활기체조, 장수체조, 저염 요리 체험 및 공동취사, 응

9) 자료 : <http://cafe.daum.net/gcloveforum/HTUj/27787?q=%B0%C7%B0%AD%BB%F5%B8%B6%C0%BB%20%C1%B6%BC%BA%BB%E7%BE%F7>

급구조치치교육, 담배연기 없는 청청마을 환경조성 및 대사증후군 예방관리 등 2014년부터 3년동안 성공적으로 추진해왔으며, 성공사례로 중국 전역 국영방송 경제채널(CCTV-2)에도 널리 보도된 바 있음



그림. 울진군 ‘건강 새마을 조성사업’ 교육 모습  
(자료 : <http://www.dmilbo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41872>)

### ◎ 수원시 마을 르네상스<sup>10)</sup>

- 2010년 10월 ‘수원시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’를 제정하여 ‘마을 르네상스’라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, 단계별 추진전략으로 1단계는 지역형 마을르네상스, 2단계는 수원형 마을르네상스, 3단계는 전국 지자체를 선도하는 롤 모델을 제시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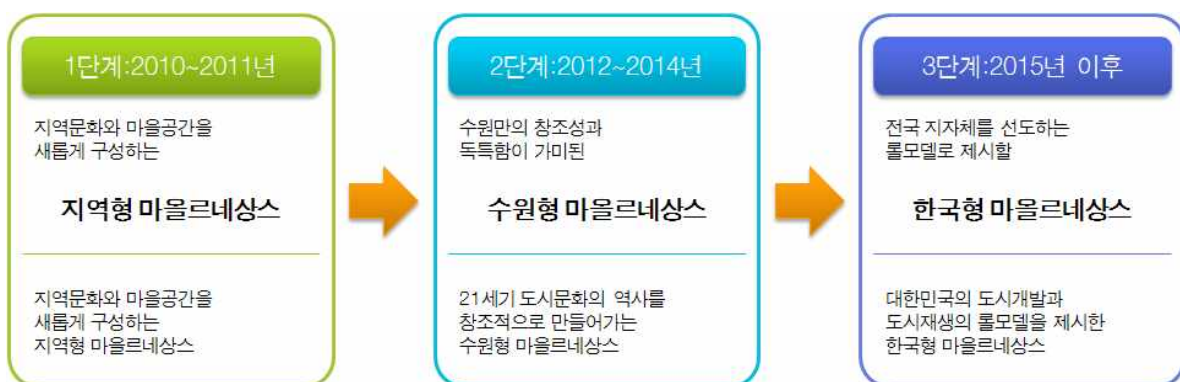


그림. 수원시 마을르네상스 단계별 추진전략  
(자료 : 수원시 마을르네상스센터 홈페이지, [www.maeulcenter.or.kr](http://www.maeulcenter.or.kr))

10) 자료 : 한국지방행정연구원, 2013,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

-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은 마을르네상스, 도시르네상스로 구분하여 운영되는데, 마을르네상스는 사업유형별로 공동체프로그램, 시설조성, 공간조성 3가지로 구분되고, 도시르네상스는 시설조성과 공간조성으로 기존 전면철거 방식과 달리 개보수하는 새로운 방식의 도시재생 정비사업임
- 부서간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제2부시장 직속인 마을만들기 추진단을 구성하고,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수원의회제21추진협의회가 위탁을 받아 마을르네상스센터를 설치함

표. 수원시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 지원금액 및 내용

구분	사업유형	지원금액	내용
마을 르네상스	공동체 프로그램	500만원 이하	마을조사, 마을축제 등
	시설조성	2,000만원 이하	쌈지공원, 벽화조성 등
	공간조성	4,000만원 이하	역사문화길, 생태탐방로조성 등
도시 르네상스	시설조성	10억원 이하	마을도서관, 커뮤니티 시설 구축 등
	공간조성	10억원 내외	르네상스 타운, 생태마을 구축 등

자료: 한국지방행정연구원, 2013,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

## ● 에너지 자립마을 부안 등용마을<sup>11)</sup>

- 전라북도 부안군은 2003년 위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(핵폐기장) 추진을 반대하면서 핵폐기장 예정부지 인근에 주민이 주도하는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함
- 부안군 하서면 장신리에 있는 등용마을, 30가구에 주민은 50여명이며, 이 마을은 우리나라 최초의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을 추진하고 있음
-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 마을이 필요로 하는 총 에너지의 50% 이상을 태양광, 풍력, 바이오매스 등으로 대체하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임

11) 자료 : 제주레저신문(2015.12.1), <http://www.leisuretime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7789>



그림. 등용마을 에너지 지도(좌) 및 태양광 발전시설(우)

(자료 : <http://blog.daum.net/anfaoghk/11298352>)

### ◎ 성주군 금수문화예술마을<sup>12)</sup>

- 금수문화예술마을은 1999년 문을 닫은 금수초등학교(1935~1999)를 리모델링해 만든 문화예술 공간임
- 지난 2000년 4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성주군, 성주교육청이 지역문화 창달을 위하여 예술인들에게 제공한 창작스튜디오이자 주민과 학생들의 문화체험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
- 지난 2011년엔 경북문화예술지원센터로 지정돼 예술 강사 200여명을 경북 곳곳에 파견하면서 최근에는 경북을 대표하는 생활문화센터로 선정됨
- 금수문화예술마을은 전통문화 예술인들에게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, 일반인들에게는 다양한 체험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들어진 곳임. 풍물, 연극, 미술, 도예 등 다양한 분야의 전통문화 체험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으며, 분야별 전문가들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숙박시설도 완비되어 있음
- 또한, 문학, 연극, 풍물, 춤, 회화 등 예술인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며, 지역 학생들과 주민들의 문화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음

12) 자료 : 홍주일보(2016.10.3), <http://m.hjn24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5109>





그림. 성주군 금수문화예술마을 전경  
(자료 : 금수문화예술마을 홈페이지, <http://www.artgumsu.or.kr/>)

### ◎ 울주군 소호산촌유학센터<sup>13)</sup>

-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소호마을은 농촌유학으로 고령화된 마을이 되살아난 대표적인 사례로 농촌유학의 교육적 측면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‘마을공동체형’으로 불리기도 함
- 본격적인 농촌유학이 시작된 2010년 궁근정초등학교 소호분교의 학생 수는 9명이었지만 현재는 45명으로 늘었고, 도시에서 농촌유학생이 전학 오고 젊은 부부의 귀농귀촌이 이어짐
- 소호분교 전교생 중 31명이 귀농귀촌 자녀이고, 14명은 도시의 부모와 떨어져 이곳에서 농촌유학을 하고 있음. 초등학교 때 농촌유학을 시작해 이곳에서 중학교를 다니는 학생도 5명이 더 있으며, 현재 소호분교에 다니는 학생 중에 이 마을 토박이는 없다고 함
- 또한, 젊은 부부들이 늘어나면서 작목반과 같은 기존 마을 단체도 활성화되고 협동조합 등 새로운 단체도 생겨났으며, 유학센터 농가부모를 비롯해 20여 개의 다양한 마을 일자리도 늘어남
- 최근 소호마을은 농촌유학 중심에서 벗어나 마을의 여러 단체의 네트워크를 통한 마을 살리기로 전환하고 있으며, 2015년부터 유학센터는 마을 이장과 개발위원장, 소호체험휴양마을 법인, 소호산촌협동조합, 소호지역아

13) 자료 : 홍성신문(2015.5.1), <http://m.hjn24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5109>



동센터와 함께 소호마을공동체협의회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음



그림. 울주군 소호마을 산촌유학

(자료 : <http://blog.naver.com/PostView.nhn?blogId=redis12&logNo=140202070070>)

## 2) 농촌마을 재편정책 및 사례

### ◎ 공동생활홈 · 공동급식시설 · 작은목욕탕<sup>14)</sup>

- 농림축산식품부는 주택 노후화, 거주 비용 부담 등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영세독거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, 2014년부터 공동이용시설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및 사업을 추진하였고, 복지·의료·문화 등 영세고령자 및 영세독거노인 맞춤형 서비스 통합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
- 공동시설의 유형으로는 ① 농촌에 거주하는 둘 이상의 고령자(가구)가 모여 식사, 취임 등 주거 생활을 함께 하는 시설 또는 주택인 ‘공동생활홈’, ② 다수의 지역 거주민이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조리 및 식사 설비 등을 갖춘 시설로 ‘공동급식시설’, ③ 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‘작은목욕탕’이 있음
- 이러한 공동시설은 전국적으로 총 152개소(공동생활 홈 70개소, 공동급식 시설 54개소, 작은 목욕탕 28개소)가 조성되었고, 실제적으로도 공동시설을 이용한 농촌 고령자의 종합 만족도는 높은 편이라고 함



그림. 김제시 월성여성경로당 공동생활홈 사례 (자료: [http://www.nongmin.com/article/ar\\_detail.htm?ar\\_id=224808](http://www.nongmin.com/article/ar_detail.htm?ar_id=224808))



그림. 순창군 적성면 작은목욕탕 (자료: <http://blog.naver.com/PostView.nhn?blogId=lsjin104&logNo=220260565461>)

14) 자료 : 농림축산식품부, 2015, ‘행복한 농어촌 따뜻한 정책을 말하다.’,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우수사례집

- 전북 순창군의 경우 취약계층과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‘1000원 작은목욕탕’을 모든 면지역에서 운영함을 목표로, 2016년 현재 10개 면지역 중 9곳에서 작은목욕탕을 운영하고 있고, 나머지 1곳은 내년에 완공할 예정임

◎ 고창군 월곡 농어촌뉴타운(꿈에 그린 마을)<sup>15)</sup>

- 고창읍과 인접한 월곡 농어촌뉴타운<sup>16)</sup>은 농림부의 농어촌뉴타운사업을 지원받고 자체 예산을 투입해 149,882㎡(약 4만5천 평) 크기로 2013년에 건설되었으며, 100세대의 귀농·귀촌인 단지 내에 커뮤니티시설, 근린생활시설, 소공원, 유치원등의 시설을 갖춰 입주자들에게 만족도를 높임
- 더욱이 단지 내 군청의 귀농귀촌지원 부서가 입주해 귀농·귀촌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도시가스와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자립형 주택을 선보여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기도 함
- 월곡 뉴타운은 태양열과 지열을 활용하는 전국 최초의 신재생에너지 주택 단지이기도 하며, 일과 중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도 2015년 조성되어 운영 중에 있음



그림. 고창군 월곡 농어촌뉴타운(꿈에 그린 마을) 커뮤니티센터(좌) 및 마을전경(우)

15) 자료 : 충남연구원 현안연구과제, 2016, 태안군 도시민 유치를 위한 타 지자체 정책 사례 분석 연구

16) 농어촌뉴타운사업은 2009~2012년 국비와 지방비 1061억 원을 투입해 충북 단양, 전북 장수와 고창, 전남 장성과 화순 5곳에 650가구 규모로 조성됨

## ◎ 체재형 주말농장<sup>17)</sup>

- 경기도는 2014년부터 휴경농지 등 1만㎡ 이상 부지에 30동 이상의 체재시설과 영농체험시설을 조성하는 ‘체재형 작은 텃밭 조성사업’을 추진중에 있음
- 기존의 체재형 주말농장이 도시민의 농어촌 교류에 초점이 맞춰졌다면, 경기도의 ‘체재형 작은 텃밭 사업’은 단지화와 주변 자연환경과 관광지를 연계한 농업과 서비스산업의 융합을 통한 농촌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둠
- 부지활용 측면에 있어서도 사업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음. 소득률이 높은 노지포도의 경우 100a(3천평) 소득이 6천400만 원인데 비해, ‘체재형 주말농장’의 1동 분양가가 평균 500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, 80% 분양 시 1억 2천만원의 수익이 생겨 경제성이 약 2배 높다고 할 수 있음
- 충주시 동량면 하천리 하곡마을에서도 2014년 친환경 황토벽돌로 지은 주택(38.12㎡) 5동과 330㎡ 규모의 농장 5필지로 조성돼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며 전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‘체재형 녹색주말농장’을 조성하여 운영중에 있음



그림. 경기도 체재형 주말농장  
(자료 : <http://farm.gg.go.kr>)



그림. 충주시 하곡마을 체재형 주말농장  
(자료 : <https://www.cj100.net/museum>)

17) 자료: 경인투데이뉴스(2014.5.19), <http://www.ktin.net/h/contentxxx.html?code=newsbd&idx=147057&hmid=9> / 충청투데이(2014.5.20), <http://www.cctoday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835629>



◎ 전원마을조성사업 - 남해 독일마을<sup>18)</sup>

- 남해군의 독일마을은 독일식 건물이라는 이국적 특성과 독일거주 교포들을 고국으로 유치해 세간의 주목을 받으면서 지역 관광사업도 더불어 활성화되고 있음
- 독일마을은 60년대 산업역군으로 독일에 광부, 간호사로 파견되어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독일거주 교포들이 고국으로 돌아와 정착할 수 있도록 조성한 테마마을임
- 현재 조성된 택지는 전량 분양되었고, 주택은 37동이 완공, 3동이 건축중에 있음. 최근 마을 내에 최근 파독전시관도 설립되고 매년 10월일 맥주축제가 열리면서 이 마을을 찾는 방문객이 많아지고 있음



그림. 남해 독일마을 전경(좌) 및 독일마을맥주축제 모습(우)

(자료 : <http://shipbest.tistory.com/1266> / <http://www.m-i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56964>)

◎ 은퇴자마을 전남 곡성 강빛마을<sup>19)</sup>

- 전남 곡성군 죽곡면에 위치한 ‘강빛마을’(사진)은 은퇴자들이 모여 농촌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음
- 강빛마을에는 유럽풍의 전원주택 100여채가 들어서 있는데, 경제력 있는

18) 자료 : 충남연구원 현안연구과제, 2016, 태안군 도시민 유치를 위한 타 지자체 정책 사례 분석 연구

19) 자료 : 농민신문(2016.5.20), [http://www.nongmin.com/article/ar\\_detail.htm?ar\\_id=264117](http://www.nongmin.com/article/ar_detail.htm?ar_id=264117)

은퇴자들이 주축이 돼 일과 소득을 창출하는 마을이라는 측면에서 여느 전원주택단지나 실버타운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음

- 13만3000㎡(4만230평)에 109채의 주택과 문화관·교육관·커피하우스·식당·국제학교 같은 근린시설이 들어선 마을은 국내 전원마을 가운데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, 100㎡(30평) 크기의 집 내부는 한옥의 짜맞춤 구조로 지어졌으며, 펜션을 운영할 수 있도록 2층 구조로 돼 있음
- 특히, 마을 운영은 주민들로 구성된 ‘강빛마을회’가 담당하고 있는데, 마을에서는 펜션사업뿐 아니라 농산물 유통사업·여행사업 등 다양한 사업도 추진 중임



그림. 전남 곡성 ‘강빛마을’ 전경

(자료 : <http://happyengineer.tistory.com/1240?srchid=BR1><http://happyengineer.tistory.com/1240>)

### ◎ 경기도 파북미래농장<sup>20)</sup>

- 경기도는 오는 2018년까지 농촌 일자리 창출을 위한 ‘파북미래농장’을 조성할 계획임. 도비 50억 원을 들여 부지를 개발하며 나머지 개발 비용은 시·군과 민간 기업의 컨소시엄을 통하여 유치할 계획임
- 파북미래농장은 ‘농촌 일자리 창출’·‘농산물 소비 확대’·‘농촌공동체 활성화’라는 세 가지 비전을 바탕으로 농산물 제조 가공 시설, 농업 6차산업

20) 자료 : 경기일보(2016.6.27), [http://www.kyeonggi.com/?mod=news&act=articleView&id\\_xno=1197947](http://www.kyeonggi.com/?mod=news&act=articleView&id_xno=1197947)



체험시설 등에 인근 주민을 고용하고 농업 관련 창업자를 유입해 농촌 일 자리를 창출하는 모델임

- 인근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가공식품을 제조, 유통함으로써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를 도모하는데, 농장 인근 농민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사업자는 양질의 농산물로 고부가가치 가공식품을 개발해 상생하는 구조임
- 따복미래농장 건설단계에서 566개, 완공 후 운영단계에서 941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, 또 약 8만9천m<sup>2</sup>규모로 따복미래농장이 운영되면 연간 16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와 43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창출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

#### ● 음성군 농업법인 ‘젊은 농부들’<sup>21)</sup>

- 농업법인 ‘젊은 농부들’의 이석무 대표(33)는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서울에서 지낸 청년으로 2010년 다른 도시 출신 대학생들과 의기투합해 청년만의 아이디어를 농촌에 결합해 충북 음성에서 농업법인을 차리고 창농하게 됨
- 젊은 농부들은 블루베리 잼과 비누 등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데, 인터넷을 통한 판매 방식을 통하여 음성군 유기농 블루베리연구회에 소속된 농가 30곳의 블루베리까지 대행 판매해 주고 있음
- 여기에 농촌체험마을에 캠핑을 도입하여, 연간 2000여 명이 찾는 젊은 농부들의 체험마을에는 최근 트렌드인 캠핑과 농촌체험을 결합한 소위 ‘팜핑(farmping)’을 시도하게 되었고, 블루베리를 수확해 보는 체험에다 캠핑까지 즐길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음
- ‘팜핑(farmping)’은 농촌의 ‘farm’에 캠핑의 ‘ping’을 붙인 용어로, 이석무 대표가 만들어낸 신조어임

---

21) 자료 : 동아일보(2015.10.15), <http://news.donga.com/3/all/20151015/74176405/1>



그림. 충북 음성군 농업법인 '젊은 농부들'

(자료 : <http://blog.naver.com/PostView.nhn?blogId=pearlchong&logNo=220742433543>)

## ◎ 영천시 가상리 우리동네박물관<sup>22)</sup>

- '우리동네 박물관'은 정부와 지자체가 재원을 마련해 시작됐던 '2011 마을 미술 프로젝트'의 일환으로 진행된 사업으로, '우리동네 박물관'은 2011년 11월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가상리에 세워짐
- 지금 이 마을에는 '우리동네 박물관'뿐만 아니라 '알록달록 만물상(아트샵)' '바람의 카페(무인 다방)' '빈집 갤러리(건축 작품)' 등 45개 작품들이 설치돼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음
- 이 박물관에서는 마을 들판 곳곳에 남아 있는 선사시대 고인돌에서부터 한국전쟁 참전용사 할아버지의 역사 증언뿐만 아니라 욱쟁이 할머니 집에서 사납게 짚어대는 진돗개, 부인 회장님 댁 옆집 마당에서 한가로운 오후의 햇살을 즐기는 고양이 해피와 나비 등 이곳에서 오랫동안 삶을 이어 오고 있는 시골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작은 곳임
- '우리동네 박물관'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작은 시골 마을에 들어선 생활사 박물관으로 콘텐츠는 대부분 마을 주민들로부터 나왔다고 함

22) 자료 : 오마이뉴스(2012.10.30), [http://www.ohmynews.com/NWS\\_Web/View/at\\_pg.aspx?CNTN\\_CD=A0001792849&CMPT\\_CD=P0001](http://www.ohmynews.com/NWS_Web/View/at_pg.aspx?CNTN_CD=A0001792849&CMPT_CD=P0001)



그림. 경북 영천 화산면 가상리의 우리동네박물관 전경

(자료 : [http://www.ohmynews.com/NWS\\_Web/View/at\\_pg.aspx?CNTN\\_CD=A0001792849&CMPT\\_CD=P0001](http://www.ohmynews.com/NWS_Web/View/at_pg.aspx?CNTN_CD=A0001792849&CMPT_CD=P0001))

### ◎ 청양군 노노케어사업<sup>23)</sup>

- 노노케어(老老care)는 노인이 노인을 돌본다는 뜻으로, 청양군에서는 비슷한 연배의 건강한 노인이 정서적 유대감을 기반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 가정을 방문해 안부를 묻고 일상을 도와주는 ‘노노케어사업’을 2014년부터 추진중에 있음
- 이와 관련하여 2016년 ‘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발대식’을 개최하였고, 참여하는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보수를 제공하는 등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은 취약 노인들에게는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



그림. 청양군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발대식

(자료 : <http://www.kns.tv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21901>)

23) 자료 : 청양군 내부자료(2016.3.18), 청양군, 건강한 노후생활 돕는다.

### ◎ 경북도 찾아라! 행복마을 만들기<sup>24)</sup>

- 경북 ‘찾아라! 행복마을 만들기’ 사업은 경북종합자원봉사센터를 주축으로 도내 오지마을을 찾아가 2013년 생활 서비스 제공(노후주거환경 개선), 마을 환경 정비, 의료지원 및 상담 등을 시작으로 2015년 건축디자인과의 ‘지역재생 프로젝트’도 함께 진행되고 있음
- 주요활동으로는 생활지원서비스, 주거환경개선이며, 지역 맞춤형 사업모델 제공, 재능나눔 자원봉사를 활용한 사업 효과 극대화, 민·관 거버넌스의 활용, 주민주도형 사업 모델 개발의 성과를 보이고 있음



그림. 찾아라! 경북구미 행복마을 돈보기 지원활동

(자료 : [http://www.ngo-news.co.kr/sub\\_read.html?uid=87894](http://www.ngo-news.co.kr/sub_read.html?uid=87894))

### ◎ 경상북도 스마트 두레공동체<sup>25)</sup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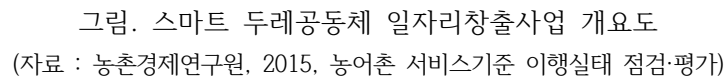
- 경상북도는 도농간 일자리 지원사업인 ‘스마트 두레공동체’사업을 2014년부터 추진중에 있음
- ‘스마트 두레공동체’사업은 만성적인 일손 부족을 겪는 농가에 도시지역 은퇴자, 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연계하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사업으로 스마트두레 참여 농가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일꾼들이 바로 현지가격으로

24) 자료 : 농촌경제연구원, 2015, 농어촌 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·평가

25) 자료 : 경상북도 보도자료(2014.12.22), 농가와 도시일꾼, “스마트하게 만나 함께 일해요”



- 또한, 유관 기관 협업을 통해 농산물 직거래 “두레장터”를 개소하는 등 농가의 판로개척을 통한 소득 증대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음



- 충청북도의 '마음탄탄 행복마을' 사업은 근거기반 마을밀착형 자살예방사업으로 65가구 농가에 농약안전보관함을 보급하고 매달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사용 현황을 점검하며, 자살 수단에 대한 접근성을 줄이고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통해 고위험군 발굴 및 관리를 목적으로 시행한 사업임
- 충청북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와 함께 소이면 봉전1리 마을에 '마음탄탄 행복마을 1호' 시범사업을 2014년에 시작해 2년간 진행하고, 2015년도에 각회1리 마을을 '마음탄탄 행복마을 2호'로 사업을 진행함
- 농약 안전사용을 홍보하고 농약 보관함을 보급함으로써 자살수단에 대한

25

접근성 및 자살 위험에 대한 1차 안전망을 확보했으며 마을 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함

- 이밖에 마을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해 생명사랑지킴이교육, 자살 예방교육, 농약안전관리교육, 치매 및 우울증 교육, 노인영양교육도 이뤄지며, 이를 통해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자살위험을 낮추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를 마련함



### 1) 결 론

#### ● 과소·고령화에 대응한 맞춤형 정책은 부재

-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과소·고령화 대응정책은 대부분 일반 농촌마을 및 지역개발정책과 차별화되지 못한 유사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
- 즉, 과소·고령화 현상과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접근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보다는, 기존의 정책추진 방식을 타이틀만 바꾸어 단시간에 눈에 보이는 성과를 거두려고 하는 한계가 있음

#### ● 재생정책은 주로 물리적 환경에 집중되고, 일부 테마형 재생정책이 추진됨

- 재생정책은 꽃길조성, 담장벽화 등 마을가꾸기, 주거환경정비, 하천 정비 등 주로 물리적 환경에 집중되고 있음
- 일부, 에너지, 예술, 산촌유학 프로그램 등 테마형 재생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, 이것도 역시 물리적 시설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

#### ● 재편정책은 주로 공간적 재편 사례가 대부분이고, 소극적 대응정책에 집중됨

- 재편정책은 커뮤니티 일부 이전, 신규마을조성 또는 기존마을 리모델링 등 주로 공간적 재편의 사례가 대부분임
- 일부, 소득원 및 일자리 창출, 귀농·귀촌인구 유치 등 새로운 커뮤니티 창출을 위한 기능적 재편정책이 추진되고 있음
- 또한, 과소·고령화 현상과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

대응정책보다는 복지, 의료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극적 대응정책에 집중되었으며, 기타 행정적 재편은 사례가 부재함

## 2) 시사점

### ● 일반마을 정책과 차별화된 중장기적인 과소·고령마을 정책이 요구됨

- 마을의 역량과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과소·고령마을은 일반마을과 동일한 경쟁방식에 의한 정책투입을 적용할 경우 정책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고, 성급한 성과를 거두려 하기 보다는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차별화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

### ● 마을 재생정책은 주민공동체 활성화가 전제 되어야 함

- 기존 농촌마을 재생정책이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원인중의 하나는 주민공동체의 활성화와 주민주도의 동기부여가 전제되지 않는 물리적 환경의 개선 및 조성에 목적을 두었기 때문임
- 즉, 기존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마을재생을 위해 집중하되, 마을만들기 등 주민이 주도하는 내발적 발전을 우선 도모하여야 함

### ● 과소·고령화의 경향과 마을특성에 따른 다양한 유형별 재편정책 마련 필요

- 마을재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을재편정책을 추진하되, 마을의 실정과 특성에 따라 기능적 재편, 공간적 재편, 행정적 재편의 다양한 적극적인 유형별 재편정책이 마련되어야 함
- 특히, 마을의 재생과 재편이 불가능하고 소멸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마지막 까지 복지, 의료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극적 재편정책은 반드시 추진될 필요성이 있음

## ◆ 참고 자료 ◆

- 김현호, 2013,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, 한국지방행정연구원
- 농촌경제연구원, 2015, 농어촌 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·평가
- 농림축산식품부, 2015, ‘행복한 농어촌 따뜻한 정책을 말하다.’,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우수사례집
- 박경철 2016, 태안군 도시민 유치를 위한 타 지자체 정책 사례 분석 연구, 충남연구원 현안연구과제
- 조영재 외, 2013, 과소화·고령화에 대응한 ‘한계마을정책’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, 충남연구원 전략연구 2013-07
- 조영재 외, 2014, 농촌지역의 과소화·고령화에 대응한 마을재편 방안 연구, 충남연구원 전략연구 2014-07